

토목조사용 시추공 정보화 보고 표중 양식에 대한 보고

장 보 안

강원대학교 지구과학부

토목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하기 위하여 매년 수백 공 이상의 시추공이 굴진되어 각종 원위치 시험 및 실내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된 지반조사는 용역사와 설계사 혹은 용역사와 시공사 간의 정보교환으로 끝나게 되고, 대부분의 자료는 사장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지역 혹은 인접한 지역에 새로운 토목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조사 용역이 수행되고, 새로운 시추공이 굴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복된 조사는 국력의 낭비일 뿐 만 아니라 폐공의 방치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에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하수 굴착공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질공학회에서는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제정 시에 토목조사용 시추공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시추공의 정보화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동일한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복 시행되는 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학회에서는 시추공 정보화 위원회를 지난 12월말에 구성하여, 토목조사용 시추를 시행한 업체가 정부(건설교통부)에 보고할 때 사용되는 표준 양식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오늘 초안을 발표하고자 한다.